

하느님께 영광~!!

## 에피소드 #1.

2023년 07월 31일부로 12년 사용한 제 학생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연장은 어렵다는 대답을 2스라ei 내무부 비자국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라 크게 당황하지는 않았고요. 덤덤하게 대안을 준비해 왔던 대로 실행에 옮겨야겠다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제 소속 선\*교단체 G피의 공식적인 행정절차도 밟았고요.

학생비자에서 성직자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2스라ei 밖으로 1~2년 정도 나가 있어야 할 상황으로 정리했습니다.

08/17 목요일, 키르기즈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어 연수를 하면서, 비자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만 시도하려 합니다. 학생비자로 12년 동안 있었기에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여, 제 소속 선교단체 리더와 의논하여 내린, 전략적 장기 비자여행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처럼, 저 역시 성직자 비자를 받는다는 100% 보장 없지만, 2스라ei를 잠시 떠나야 한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심 따라 움직여 키르기즈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스라 살림은 거의 정리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주께서 다시 우리 가정을 2스라ei로 들여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책과 소소한 가재도구 몇 점만 지인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타던 차량은 후임 선교회에게,  
부부 침대, 애들 싱글 침대 3개, 책상들, 책장들, 냉장고, 피아노, 청소기, 소파, 식기 등등 필요한 분들에게 모두 거저 나눠줬습니다.

선교회는 주는 사람이라는 명제를 이번 살림 정리하면서 오랫동안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에피소드 #2.

얼마 전, 9학년 (중3) 막내 하담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거예요. 제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30여 분 동안 영영 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소 진정이 되고 난 후 다시 물었지요. 무슨 일 있었느냐고요. 딸아이 대답은 이랬습니다.

“2스라e이 그리워서요.....”

학교생활을 매우 즐거워했던 막내 하담이.... 감정이 북받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움’을 체득하고 있는 사춘기 소녀 하담이. 가슴앓이 하고 있는 딸에게, 아비라는 자가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댈 품을 내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 에피소드 #3.

2023년 10월 07일 하마스 무장세력들이 2스라e 지역을 침범하여 비(非)무장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2스라e에 예비군 동원령이 내려졌고, 전군 전투태세로 가자지구 앞에 군인들이 집결했습니다. 전면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국지전으로 시작되었고, 40일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쟁은 시가전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큰 애 하일이 친구들은 2023년 6월 말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부분 현역병으로 7~8월에 입대했는데요, 가자 지구 바로 코앞에 집결해있다고 SNS를 통해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줬습니다. 하일이 친구의 형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튿날 전사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 피상적으로 생각만 하던 우리 집 장남 20살 하일이는 가깝게 지내는 친구의 형 전사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전쟁 5주차였던 11월 중순부터 현역병 친구들 모두 가자지구에서 철수하여 본대로 돌아갔고, 11월 18일에는 휴가를 받아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최근 2스라e이 빠른 시간 내 전쟁을 끝내려 한다는 전문가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에피소드 #4. 무료급식소

전쟁 중에도 마약치유센터와 무료급식소 그리고 리손 레-찌온 교\*회는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켓포 공습이 절정에 달했던 한 주를 빼고, 예\*배와 4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마약 중독자로 길에서 생활하던 안뜰 형제가 치유센터에 입소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마약의 중독성은 매우 강합니다. 마약 해독과 치유 과정은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고 맡기라고, 성\*령님께 의지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입소 첫 주부터 스텝들의 헌신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단증상으로 온몸을 떨고 통증을 호소하는 신입 형제들을, 먼저 입소하여 은혜를 체험한 지체들과 스텝들이 붙들고, 하늘 아버지의 주권적 일하심에 맡기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온몸으로 금단증상을 견뎌내야 하는 첫 주가 가장 힘든 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손 레-찌온 마약치유센터 스텝들과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신입 안뜰 형제를 잘 돌보도록, 안뜰 형제가 자신의 믿음은 없지만 지체들의 돕는 ㄱ드를 통해 믿음을 갖고 성\*령 체험하도록, 돕는 ㄱ드 부탁드립니다.



[ 안뜰 형제 ]



[ 무료급식소 리더 알렉스, 스비에타 부부 ]



[ 무료급식소 입소자1,2, 알렉스, 부리더 툴릭 ]



전쟁이 있던 없던 하루 평균 50여명의 노숙자와 중독자들이 우리 무료급식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들은 평일 오후 15~17시 무료급식소와 그 앞 상황입니다.



[ 배식 중 - 식사와 더불어 과일, 간식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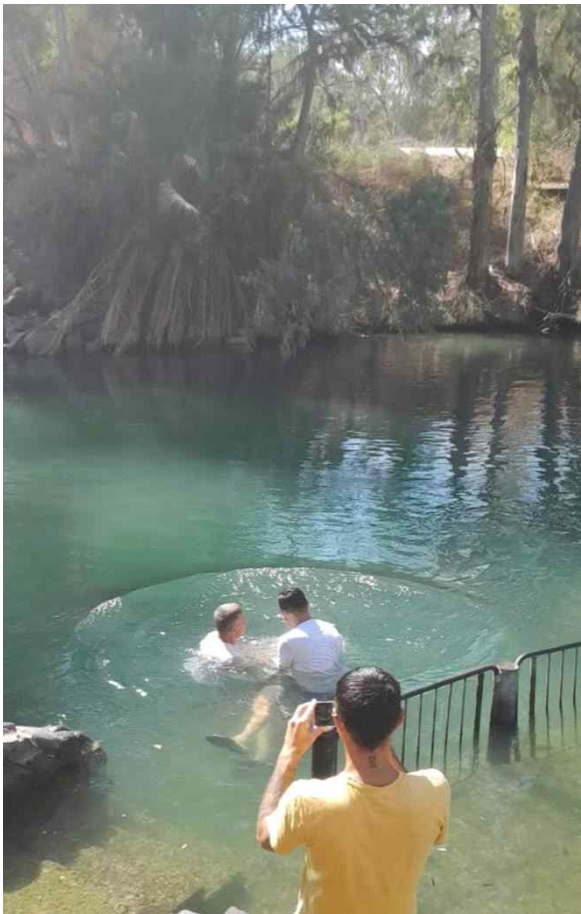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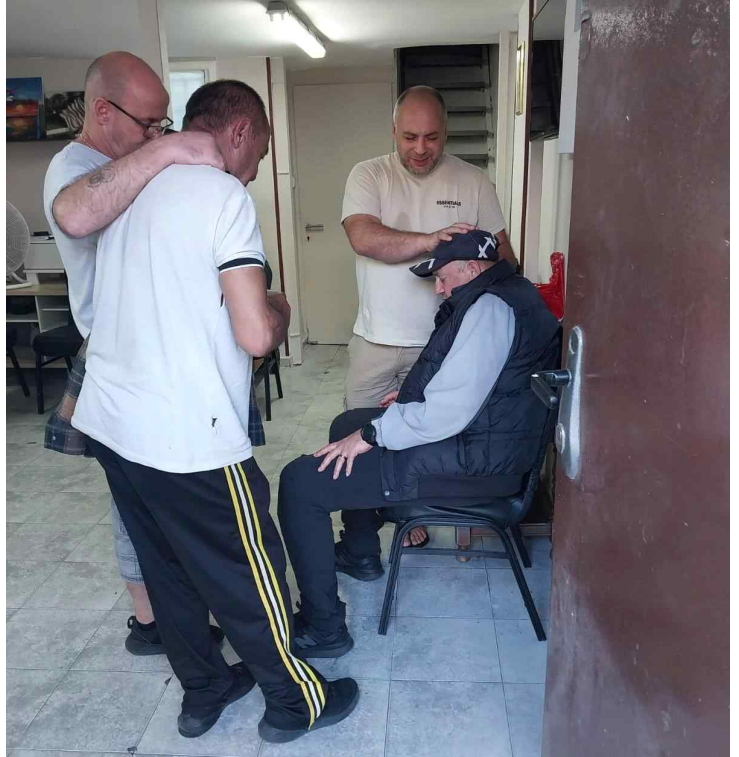


[ ← ↑ 식사 후 대화 ]





노숙하는 마약/알콜 중독자들 중에 구교 받고 싶다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천 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한 결신도 있습니다. 그 결신의 결과 세례를 받는 잔치가 요단 강에서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으로 나눕니다.



한 결같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섬기시는 구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돋보이기를 빕니다. ^^;

##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2스랄에 두고온 4역지들(무료급식소, 마약치유센터 그리고 개척된 교회) 그리고 동역자들이 눈에 밟힙니다. 푸드뱅크와 우리 4역을 알고 있는 현지 유대인들을 통해서 빵은 얻어다 먹는데 아무래도 단백질과 채소 및 과일 섭취는 쉽지 않거든요. 마약치유센터에 일용할 양식 특히 신선한 단백질과 채소 그리고 과일을 공급해주시도록, 무료급식소 음식 공급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줄었고요. 무료급식에 필요한 음식과 자/봉들이 채워지도록,
2. 우리 가정이 잠시 자리를 비우는 기간 동안 2스랄 무료급식소, 마약치유센터, 교회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월세 등등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3. 리손 레-찌온 마약치유센터 스텝들과 마약중독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지체들이 신입 안뜰 형제를 잘 돌보도록, 안뜰 형제가 현재 믿음은 없지만 지체들의 헌신과 돕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슈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성\*령 체험하도록,
4. 우리 다섯 식구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비자 카테고리 변경을 위해 잠시 2스라e를 떠나 키르기스스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가정의 사\*역 대상은 구 소련연방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만 러시아어가 마음의 언어입니다. 2스라e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 키르에 머무는 동안 러시아어를 익히려 합니다. 잘 배우도록,
5. 키르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체류 비자(1년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수일 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비자 발급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6. 이곳 키르에서 사용할 중고 차량, Subaru, Outback, 2016년식 20만 km 무사고, 2.5L, 가솔린, 한화 약 2,430만인데 현재 재정 900만 모금되었습니다. 채워지도록,

돕는 기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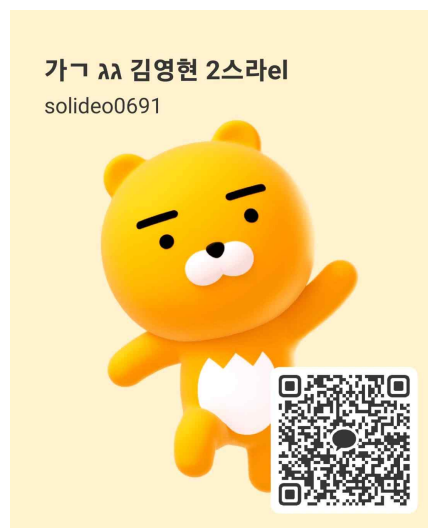
계좌번호와 가족사진을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GP 선\*교\*회 공식 후원계좌 ] KEB 하나은행 990-090819-590 예금주 김 영현. 황 혜영



[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승선했던 **음바 항구**에서 ]

이-메일 [solideo0691@daum.net](mailto:solideo0691@daum.net) / 한국 인터넷 전화 070-4670-2414 / 카톡 ID : solideo0691



추신. 다음 링크를 따라가시면 이전에 나뉘던 2스라el 선\*교 상황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gpinternational.org/?\\_filter=search&act=&vid=&mid=gp\\_story&category=&search\\_keyword=%EA%B9%80%EC%98%81%ED%98%84&search\\_target=user\\_name](http://gpinternational.org/?_filter=search&act=&vid=&mid=gp_story&category=&search_keyword=%EA%B9%80%EC%98%81%ED%98%84&search_target=user_name)